

LG화학, 인조대리석 미국공장 준공

4000만달러 투자 HI-MACS 30만장 공장 완공 ... 점유율 20%로 확대

LG화학이 국내 석유화학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공장을 건설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LG화학은 미국 조지아 고든 카운티에서 인조대리석 하이맥스(HI-MACS)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10월4일 발표했다.

인조대리석은 싱크대 상판, 욕조 등에 쓰이는 고급 인테리어 내장재로 천연 대리석에 버금가는 외관과 질감을 갖추고 있는 고부가가치제품이다.

LG화학은 하이맥스 생산시설에 4000만달러를 투입했으며 연간 가로 760mm, 세로 3680mm, 두께 6-12mm 기준으로 30만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화학은 공장 준공을 통해 1조2000억원의 세계 인조대리석 시장점유율을 14%에서 2008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인조대리석 수요가 많은 미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물류비, 관세, 포장비를 절감하고 납기 및 서비스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공장 준공식에는 LG화학 노기호 사장, 산업재사업본부장 박규석 부사장, 성재갑 LG 고문 등 LG 임직원들과 소니 퍼듀 조지아 주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기호 사장은 “하이맥스 공장을 향후 산업재 사업을 위한 미국 콤플렉스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0/05>